

편의점 수제맥주 시대

주세법 개정...이달부터 대형마트·슈퍼 판매 허용 소규모 주류제조 활발...광주·전남 산업육성 시급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이달부터 슈퍼마켓, 편의점, 대형마트에서도 수제맥주를 살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수제맥주는 제조장과 영업장에서만 일반에 판매할 수 있었지만 마트 등에서도 판매가 허용된 것이다.

국산맥주를 점차 외면하고, 수입맥주에서 수제맥주까지 소비자들이 다양한 입맛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광주지역 유통업체가 수제맥주 판매에 나설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5일 기획재정부의 주세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소규모 주류제조면허를 따려면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가 필요했지만, 개정안에서는 삭제됐다.

맥주 관련 시설기준도 완화됐다. 현재 맥주 저장고 용량은 75kℓ가 한계지만 앞으로 120kℓ까지 허용된다. 출고 수량도 200kℓ 이하 40%, 200kℓ 초과 500kℓ 이하 60%, 500kℓ 초과 80%로 완화됐다.

이에 따라 수제맥주 등 소규모 주류제조업 관련 장점이 활성화되고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유통업체 입장에서 수제맥주 판매는 '호재'라고 할 수 있다. 최근 국산맥주의 입지가 급속히 줄어들고 있는데, 수입맥주를 넘어 수제맥주 소비가 급속히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편의점 CU(씨유)에 따르면 올해 들어 2월 현재까지 국산맥주의 매출 비중은 39.8%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4년 70.8% 점유율을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무려 30%나 점유율이 무너진 셈이다.

또 수제맥주의 경우 관련 시장이 연평균 40% 상당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어 맥주 매출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제맥주 판매를 두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광주지역 유통업체에서는 수제맥주 판매에 대해 '아직은 확신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판매는 허용됐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소규모 제조생산이라는 수제맥주의 특성상 꾸준한 생산·유통량과 위생상의 안전, 품질, 맛의 일관성 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의견이 많다.

특히, 순창과 대구, 고창 등 수제맥주가 활성화된 지역과 달리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어렵다. 수제맥주 생산업체가 없다는 것도 발목을 잡고 있다.

광주 광산구의 '우리밀', 농도(農道) 전남의 쌀과 보리 등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서라도 지역 내 관련 산업육성이 시급한 상황이다.

박기용기자 pboxer@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고맙습니다” 금감원, 광주은행 등 광주·전남 은행 5곳에 감사장

금융감독원 광주전남지원(지원장 조운근)은 5일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예방에 기여한 광주·전남지역 금융회사를 방문해 직원들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이날 금융감독원장 감사장을 받은 금융회사는 광주은행(신기신장·상무중앙·학운동·강남지점), KB국민은행(상무지점), 신한은행(광주지점), 농협은행(순천시청 출장소), 우정사업본부(우정사업정보센터) 등이다.

광주은행 학운동지점의 경우 고객이 해외송금 4700만원을 요청했으나 사기범과 연락을 주고 받는 정황을 포착, 고객을 설득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했다.

우정사업본부는 고객계좌 거래 내역 중 의심거래(2000만원 입금)를 포착, 송금자와 통화 끝에 보이스피싱을 인지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피해를 예방하고 사기범을 검거하는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금융감독원 광주전남지원은 5일 광주은행 본점에서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를 예방한 광주은행 직원들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왼쪽부터 광주은행 안영수 부행장, 고은애 계장, 최새롬 계장, 고훈 차장, 조운근 금융감독원 광주전남지원장, 광주은행 김선미 차장, 최영균 부장.

금융감독원 광주전남지원 관계자는 “경찰, 금융회사 등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보이스피싱의 현장 예방활동을 강화하겠다”며 “금융소비자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금융회사 직원들을 지속적으로 격려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금호홀딩스 → 금호고속 간판 변경

금호아시아나 “창업초심으로 돌아가 그룹 재건”

돌고 돌아 금호고속으로 돌아왔다. 금호아시아나는 4일 그룹 지배회사인 금호홀딩스의 사명을 금호고속으로 변경했다고 5일 밝혔다.

금호홀딩스의 사명을 모태(母胎)인 금호고속으로 바꿔 새로운 출발의 시금석으로 삼겠다는 게 그룹 설명이다.

금호그룹은 지난 1946년 고(故) 박인천 창업회장이 중고택시 2대(포드 디럭스 35년형·내쉬 33년형)를 구입, ‘광주 택시’(현 금호고속)를 세운 게 시초로, 금호고속은 그룹을 일구게 된 모태가 된 기업이다.

변변한 교통수단이 없던 시절, 금호

고속은 지역민의 발이 됐고 지역민 역시 각별한 애정을 보임으로써 회사 성장에 디딤돌이 됐다. 금호고속은 한마디로 지역민과 애환을 함께 해 온 가족과 같은 존재였다.

금호아시아나는 금호고속을 통해 순풍에 돛 단 듯 성장을 거듭했고 건설업계 강자(強者)인 대우건설 인수, 물류업계 1위 대한통운 등을 사들이며 한때 ‘호남 유일 10대 그룹’으로 올라섰다.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 금호석유화학, 아시아나항공, 대한통운, 대우건설 등 주력 계열사를 거느리며 세계 순위도 7위까지 상승했다.

하지만 미국발 금융위기 등으로 위기를 맞았고 대우건설, 금호고속, 금호타이어, 대한통운 등을 매물로 내놓았다. 금호고속도 이 과정에서 매물로 나와 지분 전부가 팔렸지만 지난해 지배회사인 금호홀딩스를 통해 다시 인수했다.

금호홀딩스는 금호고속을 흡수 합병해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안정적인 지배구조를 완성한 바 있다.

다만, 금호그룹 재건의 2개 축 중 하나로 꼽혔던 금호타이어는 끝내 되찾지 못하고 중국 타이어기업인 더블스타로 매각됐다.

금호아시아나 관계자는 “창업초심(創業初心)으로 돌아가 항공·건설·고속시업을 주축으로 그룹 재건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상의 4차 산업혁명 강좌

광주상공회의소는 오는 9일부터 이틀간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에서 조병완 한양대 교수를 초청, 지역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4차 산업혁명 집중강좌’를 연다.

조 교수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신성장 사업분야 진출 방안 등을 중심으로 강의한다. /김지율기자 dok2000@

롯데백 15일까지 봄 세일

롯데백화점 광주점이 6일부터 15일까지 봄 정기세일을 진행한다.

이번 정기세일 기간에는 40만원 이상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평창 동계올림픽 인기 상품인 장원급제 수호랑 인형을 300명 한정 선착순 증정할 예정이다.

또 블랙마틴시봉 매장에서는 롯데백화점에서만 구입할 수 있는 스니커즈 5종을 9만9000원에 판매, 가이거 매장에서 시계·팔찌 세트를 100세트 한정 15만9000원에 선보인다.

줄서기 상품전도 마련해 맨티슈트 바지를 50명 한정 2만원, 예작 셔츠 3종 세트도 50명 한정 5만원에 판매한다.

오는 15일까지 9층 행사장에서는 휴먼테러 초대전을 열고 다우닝 가구를 20% 할인하고, 진열상품도 30~40%까지 할인한다. 지하 1층에서는 10일까지 스위트룸 봄·여름 이월상품을 60~80% 할인하고, 또 비비안 란제리에서도 여성팬티 7000원, 브라지어 2만원 등을 특가로 구매할 수 있다. /박기용기자 pboxer@

가계·기업대출 다 막힌다

2분기 대출태도지수 전망 -14...신용위험 금융위기 후 최고

가계는 물론 대기업, 중소기업을 가리지 않고 은행 대출이 한층 힘들어질 전망이다. 저축은행 등 비은행금융기관도 대출이 간헐해질 것으로 보인다.

금리상승 등 영향으로 신용위험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437.52 (+29.46) ▲ 금리 (국고채 3년) 2.18% (+0.01)
- ▲ 코스닥 868.93 (+6.42) ▼ 환율(USD) 1059.70원 (-0.10)

출행대 서베이 결과’를 보면 2분기 국내 은행의 대출태도지수 전망치는 -14로 조사됐다. 대출행태 서베이는 대출태도 동향과 전망을 수치로 표현한 조사다. 숫자는 -100부터 100 사이에 분포한다. 전망치가 마이너스면 금리나 만기 연장 조건 등 대출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금융기관이 대출 심사를 완화하겠다는 곳보다 많다는 뜻이다.

지난달 도입된 개인사업자대출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으로 중소기업 대출이 특히 어려워질 전망이다. 중소기업은 대출태도지수가 전월(-3)보다 마이너스 폭이 커졌다. 신용위험지수는 35로 전 분기보다 11포인트 올라 2009년 1분기(38)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 /연합뉴스



AromaLife

아로마라이프

몸매보정 된다는데, 순환안되고 갑갑함쯤이야 ?

아닙니다. 니를위해 포기할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능성속옷 의명가



한국, 미국, 일본, 중국 특허 | 편안한착용감 | 해양심층수 각종미네랄 함유로 특별하게 | 탄성GOOD! 흡발습GOOD! | 생리적인 불편을 해소 | 일본 도레이社 LYCRA | 원적외선 특수물질 가공 | 별단면옥각형 사용

www.aroma-life.co.kr

1588-2219